

대한방직 부지 연말 착공 · 분양

자광, ‘전주 관광타워복합사업’ 9월말 최종 사업계획 승인 거쳐 허가 위한 마지막 단계 돌입

전주시 효자동 옛 대한방직 공장부지가 연내 ‘전주 관광타워복합시설’로 탈바꿈을 알리는 첫 삽을 뜨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됐던 공장부지가 시민들이 즐겨찾는 관광타워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전환될 예정이다.

16일 (주)자광(회장 전은수)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전주 관광타워복합사업’이 9월말 전주시의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018년도 부지 매입 이후 각종 기술평가와 심의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 허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자광은 지난 3일 관광전망타워와 호텔시설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축물안전성 영향평가심의 절차도 완료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연말 자광과 업무협약을 통해 개발부지 내 무상귀속시설인 도로와 경관녹지 307억 원, 지역사회공헌시설 사업비 1,020억 원과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얻는 토지가치 상승분 2,528억 원 등 공공기여금 총 3,856억 원을 지난해 12월 확정하 바 있다.

더 나아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각종 조성공사에 30%~50%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



자광 전은수 회장이 1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 관광타워복합사업이 이달 말 전주시의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고 있다.

이중 1,020억원 상당은 시민들을 위한 지역사회공헌시설 사업에 기여되도록 ‘전주 시립미술관건립’ 공사비 360억 원, 근린공원시설 내 ‘공영지하 주차장건립’ 공사비 160억 원을 투자하며, 사업준공 후 발전기금운영 재원을 조성해 연간 25억 원씩 20년간 500억 원을 지원한다.

해당 지원금은 교육장려·장학금 지원사업, 소외계층·저소득층 및 유아·노인 돌봄 후원 사업, 다문화 및 장애가정 돌봄 후원사업, 지역 문화·예술 창작활동지원 및 각종 행사 운영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자광은 해당 부지의 복합개발 핵심은 전주시의 도시관리계획 발전 방향에 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선도할 수 있도록 최고의 랜드마크시설 도입과 품격 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전주의 미래를 밝히는 모범적 사례를 만드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시설은 △정주시설로 지상4층, 10개 동으로 이루어진 고품격 주상복합아파트 3,536세대 △생활인프라시설인 복합쇼핑몰·대형마트·영화관·놀이시설 △시민들의 문화와 힐링을 제공하는 국내 최대규모 도심형 공

공지 공원 △한옥마을 방문관광객과 함께할 수 있는 360도 파노라마뷰로 설계된 관광전망타워와 200실 규모 호텔 △공공청사로 효자동 주민생활지원센터 건립이다.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자광은 즉시 우수한 협력시공사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사업비 조달에 필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올해 연말에 공사 착공과 동시 공동주택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자광은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전주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관광·문화 플랫폼을 선도하는 광역도시 위상을 갖출 수 있게 돼 한층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은수 회장은 “작금의 시기는 건설·경제 등 내외의 여건이 녹록지 않아 관심과 열려, 걱정도 있지만, 투자를 결정하고 오랜 노력의 결실로 사업허가를 앞둔 이상 기업가로서 소임을 다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추진력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결과 공사 기간중 약 3만명, 운영 시 약 3,000명의 안절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연간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약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와 (사)한지문화진흥원은 16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전주시 일원에서 ‘제24회 전주-가나자와 전통공예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위해 전주를 찾은 가나자와시 방문단은 윤종욱 전주시 부시장을 만나 무라야마 다카시 가나자와시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두 도시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했다.

전주-가나자와 전통공예전 개최

10월 18일까지 전주시 일원서 공예품 160여 점 전시

전주한지 공예품 등 전주의 우수한 전통공예 작품과 국제 자매도시이자 유네스코 공예창의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의 전통공예품이 전시된다.

전주시와 (사)한지문화진흥원(이사장 김해미자)은 16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전주시 일원에서 ‘제24회 전주-가나자와 전통공예전’을 개최한다.

시와 일본 가나자와시는 자매도시를 맺은 지난 2002년부터 올해로 24년째 해마다 번갈아가며 전통공예 작품 교류전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전시는 더 많은 시민이 전주와 가나자와의 전통공예를 만끽할 수 있도록 약 한 달 동안 3개의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전시가 진행된다.

먼저 9월에는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하안양육집과 전주공예품전

시관에서 전시가 진행되며, 오는 10월에는 ‘2025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과 연계해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양 도시의 전통공예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한·일 대표 전통공예도시인 두 도시의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이번 교류전에는 가나자와시의 대표 공예 기법인 가가삼강 기법을 활용한 작품 등 총 130여 점의 전통공예품이 전시된다.

여기에 우리에게 친숙한 전주지역 공예작가들의 작품 30여 점도 함께 선보인다.

이와 관련 이번 행사를 위해 전주를 찾은 가나자와시 방문단은 이날 윤종욱 전주시 부시장을 만나 무라야마 다카시 가나자와시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20년 이상 이어져 온 두 도시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농기센터, 소형화물차 뒷바퀴 조명등 설치 완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화물차의 야간 운행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뒷바퀴 조명등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주)에스라이팅과 협력해 총 21대 차량에 조명등 설치를 완료했다. 이 사업은 시가 행정 지원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북전주농협이 장소를 제공해 이뤄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가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주)에스라이팅에서 인증 제품을 지원했다.

시는 이번 조명등 설치를 통해 △야간 시인성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 △불법 조명등 근절 및 안전 문화 개선 △농촌 지역 어두운 도로 안전 확보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세계 최초 ‘드론축구월드컵’ 25일 전주서 개막

25~28일 33개국 290개팀 참가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월드컵이 드론축구 종주도시 전주에서 펼쳐진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제 드론 스포츠 대회인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시는 전 세계 33개국 290개팀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산업과 문화를 아우르는 글로벌 드론 스포츠 수도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첫날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예술단의 국악관현악단 연주와 전주대 ‘싸울아비’의 태권도 시범공연, 군집드론에어쇼를 시작으로 △선수단 입장 △개회선언 △선수단 및 심판 대표 선서 △드론축구 퍼포먼스 및 성



화 점화 등으로 꾸며진다.

사상 최초로 열리는 드론축구월드컵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궈줄 무대로 K-POP 대표 아이돌그룹인 라이즈(RIIZE)와 아홉(AHOF), 아이칠린

(ICHLIN'), 트로트계의 팔색조 가수 김희재의 축하공연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번 드론축구월드컵의 본경기인 드론축구 대회는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단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맞붙는 국가대표전과 세계 각국 클럽팀이 참가해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선보이는 클럽대항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또한 시범종목으로 △드론축구 장애물 경기를 빠르게 통과하는 ‘크래싱 대회(Cracing)’ △최단 시간 득점 승부를 겨루는 경기인 ‘슈퍼파일럿 선발대회’(Super Pilot Competition)도 마련돼 드론 스포츠의 새로운 재미를 선사한다.

시는 이번 드론축구월드컵은 관람객이 단순히 드론 경기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전주의 문화와 관광,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전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준비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기자촌 사업 현장 방문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형배)는 16일 전주 중노송동 일원에 추진 중인 기자촌 재개발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특히 박형배 위원장 등 도시건설위원회원은 작업자 안전교육, 운영질환 예방 활동, 태풍·폭우 대비 현장 관리 적정 여부 등 현장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또 △지역 하도급 입찰 참여 기회 확대 △시공능력평가 등 임찰참가제한 기준 완화 △우수 지역업체 추천 △지역 정비·인력 사용 등 지역경제와의 상생을 강조했다.

기자촌 재개발정비사업은 2,226세대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



하는 주택 정비사업이다.

박형배 위원장은 “기자촌 재개발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 줄 것”이라며 “안전관리와 지역업체 참여가 철저히 이뤄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재개발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 이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통시장에서 시작되는 상생의 경제, 활력있는 민생경제도시 김제"

지역 경제의 활력과 사람을 잇다

시장 경제와 우리의 문화를 잇다

지역 사회 공동체의 가치를 잇다